

들꽃영화상 화제작 한자리에서 본다

광주독립영화관 26~28일 상영회 '버티고' '판소리 복서' 등 4편 상영 감독·배우 등과 만남의 시간도

지난 2014년 만들어져 올해 7년째를 맞은 '들꽃영화상'은 적은 예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립영화의 제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독립영화인들을 재조명하고, 독립영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들꽃'이라는 이름처럼 적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뿌리내리고 자라는 독립영화의 창조적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선보여 온 들꽃영화상의 화제작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독립영화관(부관장 이세진)이 오는 26~28일 '들꽃 영화제 광주독립영화관 상영회'를 개최한다. '들꽃 영화제 전국순회 상영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4편의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상영 후에는 감독, 배우 등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상영회의 첫 포문은 26일 오후 5시30분 제7회 들꽃영화상에서 활영상과 음악상을 수상한 '버티고' (2019)가 연다. '버티고'는 '삼거리 극장' (2006)과 '러브픽션' (2012) 등을 연출한 전계수 감독의 작품으로 상영 후에는 전 감독과 영화평론가 김효정이 관객과 만난다.

작품은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서영(전우희)의 위태로운 일상을 그린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비밀연애, 그리고 짐이 되는 가족까지... 서영이 더 이상 버틸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우연히 창밖 로프에 매달린 남자와 마주한다. 믿고 있던 관계들이 붕괴하며 일어나는 마음속 파장을 그린 '버티고'는 전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의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27일 오후 5시30분에는 단편영화 '덤프시물:참회록' (2014)과 '판소리 복서' (2019)가 연달아 상



'판소리 복서'



'버티고'

영된다. '덤프시물:참회록'은 과거의 실수로 체육관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간 전직 프로복서 병구의 이야기다. 병구는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지원군 민지(이혜리 분)와,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는 박관자(김희원 분) 덕분에 포기해버린 꿈인 '판소리 복서'를 다시 시작한다.

'판소리 복서'는 26분짜리 '덤프시물: 참회록'을 장편영화로 각색한 것으로, '웃픈' 감성이 관객

의 마음을 파고드는 영화다.

정혁기 감독은 '판소리 복서'로 제7회 들꽃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으며, 병구를 연기한 엄태구는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날 영화가 끝난 후에는 정혁기 감독과 영화평론가 김효정, 배우 박중환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난다.

상영회의 대미는 영화 '박화영' (2017)이 장식한다. 28일 오후 7시, '박화영'은 단편영화 '집'을 장편영화로 확대한 작품으로, '집'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김가희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김가희는 이 작품으로 제6회 들꽃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과 신인배우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10대 '기출뿔' (기출 청소년 공동체)의 리얼한 생존기를 담았으며,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엄마로 불린 소녀 박화영이라는 강렬한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영화 상영 후에는 이환 감독과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참석한다.

영화제 관람료는 일반 7000원, 어르신·청소년·장애인 6000원이며 예매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나 인디엔아트시네마에서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45명만 입장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VR 접목 아시아 악기 배우고 인형극 꾸미고 'ACC 전문인력아카데미 랩' 수강생 창작 콘텐츠 8편 발표

'ACC 전문인력아카데미 랩'에 참가한 수강생들의 창작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전문인력 랩 과정 참가자들의 창작 콘텐츠를 'ACC 채널+'(www.acc.go.kr)을 통해 발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성과물은 체험형 공연과 음악극 등 총 8편이다. 전통음악극 '요술부채와 심술이'는 악기소리에 대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 '시아의 잃어버린 악기를 찾아줘'를 통해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입체영상(3D)모델 등을 접목해 아시아 악기를 배울 수 있다.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신과 별 그리고 오늘이'는 어린이가 직접 탈을 만들고 인형극을 꾸며볼 수 있는 기회다. '탈, 무도회'는 생음악에 탈춤 등

흥겨운 몸짓을 융합해 관람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연이다. 창작연희놀이극 '얼쭈절쭈 별별세상'은 제주 무속 신화를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한다.

불안한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예술로 보듬은 '불안의 맛: 혼란의 바다', 안식처를 갈망하는 '날 삼: 나리는 섬, 날이 섬, 날 것의 섬', 기존 전시에서 해시태그를 붙이는 온라인 전시 '#Media_anatomy: Transparent Study' 등 전시도 선을 보인다.

한편 ACC 전문인력아카데미는 올 한해 총 3개 과정, 284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ACC 전문인력아카데미 랩'은 수료생들이 틈을 이뤄 최대 7개월 간 전문가 지도를 받으며 이야기를 발굴, 콘텐츠를 창작하는 심화교육과정 사업이다. 문의 062-601-475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로젝트 랩 '요술부채와 심술이'

'돈 카를로' '리골레토'... 베르디 오페라 명곡 만나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송년 갈라콘서트 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장일범 해설...30일 온라인 공개

베르디의 오페라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2020 송년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과 함께 베르디 오페라 명곡들을 갈라 콘서트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다.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돈 카를로', '라 트



소프라노 임세경 음악평론가 장일범

라비아타', '리골레토', '아이다' 등의 명장면을 선보인다.

김애령 목포대 교수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전남대 음악학과 박인욱 교수 지휘로 카메라타 전남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임세경·박수연을 비롯해 바리톤 공병우·손승범·김치영, 메조소프라노 양송미·오신영, 베이스 최승필, 테너 신상근·윤승환·김백호·윤병길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12명이 출연한다.

공연시간은 총 90분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대신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공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오는 30일 오후 8시에 네이버 TV에서 공연실황 영상을 공개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사랑과 일상 등 소재로 다양한 풍경 그려

고경자 시인 '사랑의 또...' 출간

현직 소방관인 고경자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시산맥)을 펴냈다.

작품집 '고독한 뒷걸음' 이후 2년 만에 펴낸 시집에서 시인은 사랑과 일상의 다양한 풍경을 그려낸다.

무엇보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창작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부단한 몸부림을 엿볼 수 있다. '수국을 보는 아침', '사과 떨어지다', '오늘을 사는 심장', '눈물', '꽃, 안개' 등 모두 60여 편은 생생한 삶의 현장과 시인의 고독한 내면에서 길어 올린 울림 있는 시들이다.

광주 출신 고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2011년 시전문지 '시와 사람'으로 등단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시를 쓰는 행위에 대해 시인은 "소방관은 현장에 출동해 도움을 주지만,

시인은 마음의 위로나 휴식이 필요한 위들에게 위안을 준다"고 말한다.

문학평론가 김윤정은 이번 작품집에 대해 "자아와 현실의 불균등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독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아의 고투를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평한다. 시인의 내면에 드리워진 창작자로서의 고민과 그림에도 사회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당위를 그리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 시를 통해 사회적 존재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고 시인은 지금까지 '하이에나의 식사법' 등을 발간했으며 2020년 광주문화재단 문예창작기금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In.ssalon_sia 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p>	<p>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식직접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p>	<p>드림케어슬루션 동구 금남로161-11 금요일딩 3층 의리기도·소매 온·냉 알칼리이온수기 5분도ष(황미ष)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p>	<p>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법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중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용행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p>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p>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안대로95(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사료 ☎ 062)531-0331, 010-5511-0331</p>
<p>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법무사 김운희사무소 목포시정의로26-4번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p>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p>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p>평화의자소파 북구 운양동 794-13(대자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소파, 업소용제작 천갈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갈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p>	<p>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